

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, 전북 소재 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다

- 재외동포청-전북특별자치도, 12일 한인비즈니스 포럼 개최...13일 수출상담회도 열어
- OK-Biz와 해외 바이어 등 80여 명, 120개 중소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전북특별자치도(도지사 김관영)와 손잡고 12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‘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’를 통해 전북지역 소재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나선다.
- 13일 열리는 수출상담회에는 재외동포 비즈니스 자문단(OK-Biz) 23명과 전북특별자치도가 초청한 해외 바이어 등 80여 명이 참가한다. 이들은 전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120개 기업과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.
 - 특히 각 기업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매칭하고, 바이어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관세, 법률 등 통상정책에 대한 자문도 진행한다.
- 재외동포청은 1~2차(6월 부산, 10월 전남)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에 재외동포 경제인 60명이 참가해 200개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380건, 수출상담 실적 696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.
- 한편 앞서 1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한상(韓商) 경제권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를 활성화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포럼을 열었다.

- 포럼에는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,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, OK-BIZ, 중소기업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, 개회식, 주제발표,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했다.

- 변 차장은 개회사에서 “K-컬처의 전 세계적 인기와 경주 APEC 정상회의로 대한민국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이 우리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의 최적의 시기이다. 이번 수출 상담회가 전북 소재 우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 고 말했다.

□ 재외동포청은 2026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2~3건의 ‘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’를 개최할 계획이다. 끝.

담당부서	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경아	(032)585-3220
		담당자	사무관	박용준	(032)585-3297

